34 차 두산아트스쿨: 미술

2 강. 이브 생 로랑 컬렉션 The Collection of Yves Saint Laurent (2009)

정윤아

일시: 2025 년 4 월 10 일 10:30-12:00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및 녹음할 수 없습니다.

이브 생 로랑은 1960 년대 여성 패션계의 혁명을 이끌었고, 그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현대 사회의 자유로운 여성의 태도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드레스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입는 여성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1936 년 출생의 생 로랑은 어린 시절부터 패션에 푹 빠져 어머니의 잡지에서 오려낸 옷을 종이 인형에게 입히고 액세서리로 장식하며 성장했고, 10 대 후반에 이미 파리에서 쿠튀르계의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57 년 멘토였던 크리스찬 디올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불과 21 세의 나이에 명망 높은 패션 하우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디올에서 보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새롭고 더욱 편안한 스타일을 선보였고, 이후 곧 자신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자신만의 패션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패션 혁신가일 뿐만 아니라 예술, 음악, 공연을 사랑하는 완벽한 미학자이기도 했으며, 다수의 연극, 발레, 영화 의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매 내용

일시: 크리스티 파리, 2009 년 2 월 23-25 일 3 일간
경매 제목: 이브 생 로랑과 피에르 베르제의 컬렉션
(Collection Yves Saint Laurent et Pierre Bergé)
출품작 수: 총 733 점
낙찰가 총액: 약 3 억 7,350 만 유로(약 4 억 8,400 만 달러)

2009 년 2 월, 크리스티는 피에르 베르제 & 아소시에(Pierre Bergé & Associés)와 협력하여 파리 그랑 팔레에서 “이브 생 로랑과 피에르 베르제 컬렉션(Collection Yves Saint Laurent et Pierre Bergé)”이라는 대규모 경매를 개최했습니다. ‘세기의 경매’로 불리는 이 경매에는 고(故)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과 그의 파트너 피에르 베르제의 개인 소장품 733 점이 출품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3 만 4 천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경매 프리뷰 전시를 보기 위해 연일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

되었습니다. 컬렉션에는 앙리 마티스, 파블로 피카소, 피에트 몬드리안 등 거장들의 회화 작품뿐만 아니라 조각품, 장식 예술품, 고가구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컬렉션 경매는 당시 단일 소장가 컬렉션 경매 역사상 가장 높은 낙찰가 총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판매 작품으로는 마티스의 "뻐꾸기 꽃, 파란색과 분홍색 카펫(Les coucous, tapis bleu et rose)"이 있으며, 이 작품은 3,200 만 유로에 낙찰되어 당시 그의 경매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아일린 그레이의 "Dragons" 안락의자는 2,190 만 유로에 낙찰되어 20 세기 장식 미술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컬렉션 주요 미술가 및 대표작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1869-1954)
뻐꾸기 꽃, 파란색과 분홍색 카펫
(Les coucous, tapis bleu et rose)
캔버스에 유채
81 x 65.5 cm. (31 7/8 x 25¾ in.)
1911

"뻐꾸기 꽃, 파란색과 분홍색 카펫"은 마티스의 유명한 정물화입니다. 화면 중앙에 노란색 뻐꾸기 꽃 꽃다발, 파란색과 분홍색이 들어간 식탁보, 왼쪽 빨간색 기둥과 위쪽 줄무늬 패턴이 들어간 다채로운 벽과 오른쪽 상단 작은 풍경화를 배치, 대조적인 색상과 패턴을 통해 역동적인 시각적 경험을 만들며, 사실적 묘사보다는 회화적 특성과 대담하고 강렬한 색상과 표현력을 강조하는 야수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 (1887-1968)
아름다운 숨결 - 베일 워터
(Belle haleine - Eau de voilette)
16.5 cm. (6½ in.) x 11.2 cm. (4 3/8 in.)
1921

이 작품은 일상적인 사물을 약간 변형하고 새로운 제목을 붙여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키는 뒤샹의 레디메이드 개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1921 년, 만 레이의 도움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기존 향수병 라벨을 수정하여 뒤샹이 자신의 여성적 분신 페르소나로 개발한 로즈 셀라비(Rrose Sélavy)를 표현(만 레이 촬영)하였습니다. 향수병의 원래 라벨에는 'Un air embaumé(향수 공기)'와 'Eau de Violette(보라색 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뒤샹과 만 레이는 이것을 'Belle Haleine(아름다운 숨결)'과 'Eau de Voilette'로 바꾸었는데, 이는 'Violette'를 'Voilette(베일 물)'로 바꾼 말장난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Rigaud 의 이니셜 'R'을 Rrose Sélavy 의 'RS'로 바꾸었습니다. 이 작품은 성 정체성, 그리고 예술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뒤샹은 대량 생산된 사물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담아냄으로써 예술적 창작과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향수와 숨결을 암시함으로써 후각과 미각을 비롯한 감각적 요소들을 유희합니다.

정윤아
현재 크리스티 홍콩 부사장(Vice President)이자 20/21 세기 미술 전문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재직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미학과 연구과정을 거쳐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예술경영 석사를 취득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에서 제프리 다이치 갤러리, 매체예술센터 등에서 근무하였고, 귀국 후 서울에서 큐레이터, 아트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면서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뉴욕 미술의 발견』(2003), 『미술시장의 유혹』(2007) 등이 있다.